문화경관으로서 비보숲
: 비인간 행위성의 관점에서

박소영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수료

1. 서론

비보림은 한반도의 전통 경관 속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는 숲이다. 마을의 배후나 입구에 조성되어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고 기맥을 이어주며, 바람과 물길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마을의 안녕과 재해 예방을 위해 보존된 공간이자 공동체의 금기와 의례의 장소였던 비보림은, 단순한 풍수 신앙의 부산물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진 경관 실천의 한 양식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보림에 관한 연구는 주로 풍수적 의미나 민속적 기능에 집중되어, 경관이 형성되는 물질적 과정과 비인간적 요소의 작동에는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 본고는 비보림을 문화경관이자 해러웨이적 의미에서 '자연문화 경관'으로 재위치시키고, 역사 사료 속 서술을 통해 산과 숲의 행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본론

비보림은 고려와 조선의 국가적 기록 속에서 일찍이 등장한다.『고려사』예종 1년(1106) 기록에는 송악산이 토사 유실로 황폐해졌음을 일관이 보고하며, 나무를 재식하여 비보해야 한다는 건의가 실려 있다. 이는 풍수적 의미와 더불어 토사 유출 방지라는 실질적 목적이 결합된 사례로, 이미 고려 시기부터 비보림이 국가적 차원에서 거론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에 들어와『경국대전』은 제언과 더불어 비보하는 숲을 훼손하는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비보림이 특정한 지역의 특수한 조치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존재한다고 전제된 범주였음을 뜻하며, 개인이 임의로 이용할 수 없는 국가적 보호 공간으로 위치지어진 것을 보여준다. 법전 속에 보통명사로서의 '비보하는 숲'이 등장했다는 점은, 비보림이 이미 사회 전반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경관 유형이었음을 방증한다.『세종실록』에는 음양학훈도 전수온의 상소가 실려 있다. 그는『명산론』을 인용해 산을 흙은 살, 돌은 뼈, 초목은 모발에 비유하며, 초목이 쇠잔하면 사회와 정치가 쇠약해진다고 하였다. 이어 신라 왕조가 천 년을 이어온 것은 산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어 결핍된 곳을 보충했기 때문이라 강조하였다. 여기서 산과 숲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흥망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자로 제시된다. 이러한 서술은 산림이 국가적 통치의 기반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경관 요소들이 인간의 운명과 정치 질서에 능동적으로 개입한다고 보는 풍수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이처럼 고려사, 경국대전, 세종실록을 비롯한 초기 사료에 나타난 비보림은, 국가적 제도와 지역적 실천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제도화된 문화경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동시에 사료의 언어 속에서 산과 숲은 능동적 행위자로 묘사되며,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경관을 형성하는 관계망을 드러낸다.

3. 결론

비보림은 풍수적 숲이라는 민속적 범주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고려·조선 시기 국가 기록 속에서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지역의 생활세계 속에서 실천되며, 오늘날까지도 마을 단위의 숲으로 전승되어 온 문화경관이다. 특히 사료 속 서술은 산과 숲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존재로 위치시키며, 인간과 비인간의 얽힘 속에서 경관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보림을 연구하는 일은 단순히 전통 경관의 기원을 밝히는 작업을 넘어, 동아시아의 풍수적 사유와 현대의 비인간 행위성 담론을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는 문화경관 개념을 인간 중심적 유산의 범주에서 관계적·물질적 장소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며, 한국의 산림·마을숲 연구를 세계적 문화경관 논의와 접목하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1451
•동경잡기(東京雜記), 1845
•세종실록 30년 (1448)

•경국대전,1485
•경상도읍지, 1832
•Haraway, Donna. The Companion Species Manifesto: Dogs, People, and Significant Otherness. Chicago: Prickly Paradigm Press, 2003.
•Haraway, Donna. When Species Mee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Haraway, Donna.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6.
•Ingold, Tim. The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Essays on Livelihood, Dwelling and Skill. London: Routledge, 2000.
•Ingold, Tim. Being Alive: Essays on Movement, Knowledge and Description. London: Routledge, 2011.
•Meyer, Elizabeth K. "The Post-Earth Day Conundrum: Translating Environmental Values into Landscape Design." In Environmentalism in Landscape Architecture, edited by Michel Conan, 187–244.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2000.
•Corner, James. "Ecology and Landscape as Agents of Creativity." In Ecological Design and Planning, edited by George F. Thompson and Frederick R. Steiner, 81–108. New York: John Wiley & Sons, 1997.
•Rees, Amanda. "Animal Agents? Historiography, Theory and the History of Science in the Anthropocene." BJHS Themes 2 (2017): 1–12.
•Sauer, Carl O. "The Morphology of Landscape."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in Geography 2, no. 2 (1925): 19–54.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Paris: UNESCO, 2021.
•김학범.「마을숲 연구」. 서울: 집문당, 2003.

사사 표기
본 연구는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